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42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7월 학평 18~2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이때는 ㉠ 정묘년 정월 십오 일이라.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하례할 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전(年前)에 짐이 조ungs을 보니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니 태자를 위하여 데려다가 짐의 곁에 두고 서동(書童)을 삼아 국사를 익히게 하고자 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다 묵묵하되 이두병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를 이유 없이 조정에 둬는 잘못된 줄로 아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의 인재를 취함이라.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취하려 하겠는가.”

두병이 다시 아뢰기를,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르더라도 조ungs보다 열배나 더한 충효의 인재가 백여 인이요, 조ungs 같은 이는 수레에 싣고 말[斗]로 그 양을 헤아릴 정도로 많습디다.”

황제께서 윤희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회답이 없는지라. 승상이 시종대(侍從臺)에 나와 관원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만일 조ungs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으리라.”

하니, 백관이 누구들 겁내지 아니하리오.

이즈음에 왕 부인과 조ungs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못내 두려워하고 응은 분기등등하더라.

천운이 불행하여 황제께서 우연히 건강이 편하지 않으시더니 ㉡ 열흘이 지나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이 깊어지니,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늘에 빌어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소인배들의 조정이라 회복을 어찌 기대하리오.

㉢ 정묘년 삼월 삼 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인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 부인 모자는 더욱 망극하더라.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이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의 행동을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 사월 사 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하였다.

하루는 관원들이 노소 없이 시종대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좃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지라. ㉤ 시월 십삼 일은 황제의 생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태자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요한데, 팔 세 태자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태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나라가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냐?”

여러 신하가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태자에게 제위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협정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고 백

[A]

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또 다른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엎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조ungs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기른다. 이후, 조ungs은 의병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간다.

이때에 황성 백성들이 조 원수가 온단 말을 듣고 즐거하여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세지 못할지라. 또 이두병을 잡아 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자칭 천자라 하여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어이 그리 단명하는고? 하늘이 통찰하여 네 죄를 아시고, 무지한 백성들도 네 육신을 원하거나 착하고 빛나도다. 일월 같은 조 원수를 보니 도탄 중에 든 백성들이 단비를 만나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 노소 장안 백성들아,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원수가 팔십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짓쳐 들어오니 황성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천우신조로 대송이 회복되도다.”

하고 무수히 하례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기 헤아릴 수 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관 어귀에 조정 백관이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B] “소인 등은 임금을 속였음이라.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했으나 매일 송 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속이 막혀 한순간인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옵에 범죄 불고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잔명을 보전하여 주옵심을 바라나이다.”

하며 애걸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천한지라.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붙잡아 오라 하시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포승으로 묶어 진중에 꿰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네 낫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죄를 생각하니 죽어도 아깝지 않음이라.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뇨?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

라.”  
 하시니 좌우의 무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빠 아뢰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이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나의 조정의 신하들은 성품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라. 죄를 알고 나의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하니 원수가 더욱 크게 성내어 무사를 호령하여 문초하라 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소리하고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니 두병이 견디지 못하더라.  
 -작자 미상, 「조웅전(趙雄傳)」-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산중으로 피신시켰다.
  - ② 관원들은 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황제의 장례를 치렀다.
  - ③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고자 했다.
  - ④ 조웅은 이두병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잘못을 심문했다.
  - ⑤ 이두병은 어린 태자의 즉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건으로 인해 ㉡ 동안 황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
  - ② ㉠과 ㉢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 ㉡의 사건을 통해 화합하게 된다.
  - ③ ㉠에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 ④ ㉡ 동안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 ⑤ ㉢의 황제의 죽음 이후, 제위에 대한 논의가 ㉣에 마무리된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B]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물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③ [A]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B]는 과거의 상황을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러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 ①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조웅의 천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는 모습은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조웅의 등장을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웅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주인공을 대신해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조웅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심문하는 행위는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실현하여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